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대한민국과 라오스와의 경기를 이틀 앞둔 1일 오후 경기도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국가대표팀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훈련을 지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오스전 ‘골 소나기’ 기대하라

슈틸리케호, 경기도 화성서 내일 저녁 8시 월드컵 2차예선

기성용·손흥민·이청용 EPL 삼총사 출격…석현준·황의조 발끝도 주목

슈틸리케호가 2018 러시아 월드컵축구 대회 아시아지역 2차 예선이 시작한 뒤 처음으로 홈팬들의 성원을 받으면서 그라운드에서 나선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3일 오후 8시 경기도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라오스와 월드컵 2차예선 G조 2차전을 치른다.

한국 축구는 라오스와의 역대 전적에서 3전 3승을 기록 중이다. 세 번의 대결 가운데 최근에 맞붙은 경기가 15년 전인 2000년에 열린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다. 당시 한국은 김은중과 설기현이 나란히 헤트릭을 기록하면서 9-0으로 승리했다.

이후 라오스는 외국인 감독에게 대표팀을 맡기는 등 전력강화에 나섰지만 아직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177위에 불과하다. 한국이 포함된 G조에서 최악세로 꼽히는 라오스는 6월 11일 미얀마와 예선 1차전을 2-2로 비긴 뒤 같은 달 16일 레바논에는 0-2로 무릎을 꿇는 등 예선 2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번 라오스전 역시 FIFA 랭킹 54위인 슈틸리케호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다. 객관적인 전력차와 함께 익숙한 홈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더기골이 쏟아지면서 고질적인 골 결정력에 대한 고민을 일소할 가능성도 있다.

슈틸리케 감독은 라오스전을 앞두고 최전방 공격자원으로 포르투갈 리그에서 활약하는 석현준(비토리아FC)을 소집했다. 신장 190cm에 몸무게 83kg의 대형 스트라이커인 석현준은 지난 시즌 포르투갈 리그에서 10골을 터트렸고, 올시즌에도 대표팀 합류 전까지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물이 오른 상태다.

안면골절로 대표팀 합류가 불발된 이정협(상주) 자리에서 뛰게 된 K리그의 토종 득점왕 후보 황의조(성남)의 활약도 기대된다. 황의조는 이번 시즌 K리그 클래식 무대에서 10골을 터트렸다. 슈틸리케 감독이 운영하는 4-2-3-1 전술에서 원톱을 따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2선 공격수 손흥민(토트넘), 이청용(크리스탈필

스), 이재성(전북) 등의 발끝에서 잇따라 득점포가 터질 가능성도 크다.

슈틸리케 감독도 8월 31일 대표팀의 첫 훈련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석현준, 황의조 등 최전방 자원과 손흥민 등 2선 공격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럽 이적시장 결과에 따라 일부 주전 선수가 라오스전에 뛰지 못하게 된 것은 변수다. 마인츠에서 뛰던 구자철도 갑작스럽게 아우크스부르크로의 이적이 결정되면서 독일로 재출국, 라오스전 출전이 불가능하게 됐다. 독일프로축구 마인츠에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로 이적한 박주호도 이적 관련 작업을 마치고 8일 레바논전에만 참가한다.

이와 함께 ‘슈틸리케호의 황태자’로 불렸던 이정협의 공백이 대표팀의 공격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미지수다. 슈틸리케 감독은 화성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표팀 훈련을 통해 베스트 11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기성용 “앞 최고대우 손흥민 EPL 활약 기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스완지시티에서 활약하는 국가대표 미드필더 기성용(26)이 토트넘 홋스퍼로 이적한 손흥민(23)의 활약에 기대를 나타냈다.

기성용은 1일 오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라오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대

내달 4일 첫 맞대결 예상

표팀에 합류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기성용은 입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손흥민의 EPL 입성에 대해 “EPL에 들어온 것을 축하한다”며 인사를 건넸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아시아 선수 최고 대우를 받은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토트넘은 손흥민 영입을 위해 3000만 유로(약 403억원)를 레버쿠젠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아시아 선수의 이적료 중 최고 기록이다.

기성용은 이어 “손흥민이 독일에서도 잘해 낸 만큼 EPL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손흥민의 활약에 기대감을 보였다. 기성용과 손흥민은 내달 4일 EPL에서 첫 맞대결을 벌일 것



으로 관측된다. 스완지시티는 토트넘을 상대로 홈 경기를 치른다.

한편 기성용은 오는 3일 열리는 라오스와의 월드컵 예선을 위해 곧바로 경기도 화성으로 이동해 대표팀 훈련에 참가했다.

/연합뉴스

손흥민→토트넘
박주호→도르트문트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유럽축구 이적 한국 팬심도 뜨거웠다

유럽축구의 여름 이적시장이 마침내 1일 문을 닫았다. 올해 이적시장은 태극전사들의 이적 때문에 어느 때보다 국내 팬들의 관심이 컸다. 이번 이적 시장을 통해 손흥민(토트넘),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박주호(도르트문트)가 새로운 동지를 찾았다.

손흥민은 자신의 별명처럼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레버쿠젠(독일)에서 토트넘(잉글랜드)로 이적했다. 2200만 파운드(약 402억원)의 이적료가 발생하면서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이적료를 경신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이 영입한 선수 가운데 최고 이적료이기도 하다. 2013년 1000만 유로의 이적료로 함부르크에서 레버쿠젠을 팀을 옮긴 손흥민은 2년 만에 몸값을 3배나 부풀리면서 토트넘에 안착했다. 올해 23살인 손흥민의 발전 가능성은 토트넘이 높게 평가한 것이다.

손흥민은 “항상 꿈꿔왔고 어릴 때부터 바운 리그다. 홈구장에 인사갔을 때 소를 끼칠 정도로 많은 환호를 해주 감사했다.

이적료가 많은 만큼 책임감을 느낀다”는 일문을 밝혔다.

손흥민이 ‘꿈의 무대’로 옮겼다면 박주호는 어릴 때부터 동경하던 ‘꿈의 구단’인 도르트문트 유니폼을 입었다. 박주호의 이적료는 약 350만 유로(약 46억원)로 알려졌다. ‘팀플레이’에 능한 박주호는 특유의 성실함을 앞세워 도르트문트 이적을 완성했다. 도르트문트의 사령탑인 토마스 투헬 감독은 마인츠 당시 박주호를 영입했던 인물이다. 박주호는 J리그 무대를 떠나 바젤(스위스)로 이적할 때부터 ‘도르트문트 입단’을 목표로 뒀고, 경유지로 마인츠를 선택하며 실력을 키웠다.

구자철은 이적시장 마지막 날 말 그대로 ‘깜짝 이적’을 당했다. 대표팀 소집을 위해 국내로 귀국했다가 지난달 31일 이적 작업을 완성하러 급히 독일로 되돌아가야했다. 구자철의 새 동지는 2012년 임대로 뛰었던 아우크스부르크다. 구자철은 임대 시절 정규리그에서 36경기를

뛰면서 8골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2011-2012 시즌 중간에 아우크스부르크에 합류한 구자철은 15경기 동안 5골을 몰아쳐 팀의 1부리그 잔류에 큰 힘을 보탰다.

한편 올해 여름 이적 시장의 마지막을 달군 구단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였다. 맨유는 1일 하비에르 에르난데스를 레버쿠젠으로 보내고, ‘20살 유망주’ 앤소니 마살을 AS모나코(프랑스)에서 영입했다. 레버쿠젠은 손흥민의 이적으로 빠진 공격수 공백의 대안으로 에르난데스를 선택했다.

하지만 맨유는 서류 작업의 실수로 골키퍼인 다비드 데 헤아를 이적시키는 데 실패했다. 맨유는 데 헤아를 레알 마드리드로 보내고, 레알 마드리드의 골키퍼 케일러 나바스를 데려오는 작업을 펼쳤지만 이적시장 마감 때까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사무국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못해 이적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연합뉴스



광주 FC 선수 트레이닝 후원

프로축구 광주 FC가 최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EMS 트레이닝 전문기업 코어무브먼트와 후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코어무브먼트 고영환 대표, 광주 SGYM 성찬욱 대표, 광양시보디빌딩 협회 김재열 회장, 광주FC 기영욱 단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 FC는 코어무브먼트로부터 최첨단 EMS(Electronic Muscle Stimulator/전기 근육 자극) 기기와 EMS SUIT, 테크핏을 제공받는다. 광주 SGYM 분선점은 EMS 트레이닝 이용권을 지원한다.

〈광주 FC 제공〉